

철암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 박성재*

철암어린이도서관은 최근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새 도서관 건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기공식도 가졌고, 지금 건립기금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 봉사활동팀의 짧은 봉사활동이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철암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cholam.com>) ■ 편집자 주

2006년 7월 31일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학부 학생들과 2006년 서울 신규 사서교사 총 18명은 1주일 동안 태백시 철암에 있는 철암어린이도서관에서 도서관 봉사활동(도활)을 진행했다. 1주일 동안 철암 지역에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고 부푼 마음을 갖고 청량리에 하나들 모이기 시작했다. 영어공부에 취업준비, 또 사서교사로서 처음 맞는 방학의 멋진 계획이 있었겠지만 여름방학의 1주일을 선뜻 봉사활동 참여를 결심하고 여러 번의 사전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와 할 일들을 배우고 준

비를 했다. 봉사활동에 대한 설렘과 그들의 웃음 속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의 삶과 배움에 많은 의미를 던져줄 것이라 믿었다.

4시간 30분이라는 기차여행에서 서먹함도 있었지만 산의 푸름과 강원도의 절경을 만나면서 사진을 찍고 자연을 화제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자신을 조금씩 내어놓는 모습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수업을 듣지만 서로를 알기 어려운 요즘의 학교현실에서 봉사활동은 서로를 알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느덧 기차는 태백의 통리역에 도착했고 도서관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분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철암어린이도서관으로 향했다. 긴 여행이었지만 강원도 탄광촌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도서관 봉사활동(이하 도활)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궁금증과 기대는 피로도 잊고 도서관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을 주었다.

처음으로 도서관을 대면했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이곳이 도서관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허물어질 듯 한



(업무시작 전 기대에 가득했다.)

*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moo@yonsei.ac.kr

도서관 외벽의 느낌과 2층에 있는 도서관으로 오르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 이것이 정말 한국의 작은 도서관의 현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서울의 공공도서관 모습이 도서관의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러나 도서관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2층으로 오르는 순간 우리들은 도서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도서관을 짓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홍보포스터와 모금함,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도서관 기금내역표, 방학 과제물로 꾸민 도서관 내부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도서관을 꾸미고 도서관을 살아 숨 쉬게 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사서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그들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도서관 현실을 부딪치며 여러 생각들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들을 보면서 이번 도합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체계적이지 않은 분류체계에 꽂혀져 있는 도서들과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이용이 되지 않는 책들. 우리들이 목표로 삼았던 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아이들에게는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을 관리하는 분에게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1주일 동안 목을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는 이미 철암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광산지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광산지역 봉사활동(광활)”은 6주 동안 철암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이나 마을내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광활을 보면서 우리 도합도 체계가 잡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단한 저녁을 먹고 구체적인 도합계획을 세웠다. 동그랗게 모여앉아 식단과 조를 짜고, 분류작업과 전산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태백 지역 도서관 인터뷰 계획들을 의논했다. 각자가 가져온 음식들을 방 가운데 모아놓고 진행된 식단 짜기는 웃음과 서로를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회의에도 모두 도합에 대한 열정으로 회의에 참여했고 그렇게 첫 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도합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에 앉아 앞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고 책상과 컴퓨터를 옮겨놓았다. 우리가 활동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광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도서관을 전부 이용하여 작업을 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람과 분류하는 사람, 바코드와 라벨을 붙이는 사람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했다. KDC를 이용한 분류작업이 학생들에게는 처음이었지만 사서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분류기호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학교 수업과정 중에 분류수업을 듣지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이번 도합의 또 다른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작업공간을 정비하고 분류작업이 더디어서 많은 책을 전산화하지는 못했다. 전체 6,000권의 장서 중에서 1,500권만을 마쳤고 우리들은 과연 일주일 동안 모든 장서를 전산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계획을 재조정하고 반드시 끝내지는 결의를 다졌다.

셋째 날부터는 분류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전산화하는 양도 크게 늘어났다. 1,700권의 장서를 분류하게 되었고 분류작업 양이 많아 다음 기회로 미루었던 사서교사들과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마저 갖게 되었다. 저녁 회의에서 야간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넷째 날 모든

분류작업을 끝마치기로 했다. 작업으로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도 모두가 열정 하나로 작업에 임하고 드디어 밤 10시에 우리는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광활 팀이 위문공연을 와 주었고 공연 중에도 라벨을 붙이는 열정이 6,000권 장서를 3일 동안 끝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다섯째 날은 작업을 마친 책을 배가하는 작업과 함께 분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직 분류가 안 된 비도서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했다. 서가에 책을 배열하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높낮이가 다른 기존의 서가를 활용하고 별치기호에 따라 서가를 분류해야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작업이었다. 마지막 책을 서가에 꽂는 순간 우리들은 환호했다. 1주일 동안 6,000권이라는 책을 분류하고 정리한다는 것이 힘들 거라는 우려를 한 번에 날려 보내고 4일 동안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서가 배가작업과 함께 한 쪽에서는 사서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메이킹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름방학 독서계획 지그재그책 만들기, 부모님 소개 얼굴 팝업책, NIE 메이킹북을 진행하며 도서관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했지만 웃음소리와 앞으로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월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도월의 마지막 저녁을 광활팀과 함께 하면서 도월에 대한 평가시간을 가졌다. 매일매일 하루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도월에 대한 느낌과 도서관, 전산화작업, 인터뷰 내용들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평가에서 모두 이번 도월에 참석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었다는 평가는 앞으로의 도월을 기대하게 했다.

이번 여름 도월의 또 다른 목표는 다음 도월을 준비하는 것이다. 겨울 도월을 어떻게 준비할 지 주변 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서 분들을 인터뷰하고 겨울 도월에서 요구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태백지

역에 있는 태백도서관, 태백시립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 동점마을도서관 인터뷰를 계획했고 이 중 인표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을 방문, 그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도월에 요구했다. 태백도서관이나 태백시립도서관의 경우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도월 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진행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길 원했다. 동점마을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도월 팀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매일 매일 평가시간에 인터뷰 내용을 듣고 다음 겨울 도월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도월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번 도월은 학교에서만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헌정보학이 현장에 기반하고 있고 현장을 외면했을 때 학문적 바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월을 통해 공부만 했던 학생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교실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서먹했던 관계의 틀을 깨고 1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월의 가장 큰 의미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철



(임무완수 후의 뿌듯함)

암어린이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점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관심거리가 되고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도활 활동을 하며 태백의 작고 큰 도서관간의 연계,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와 네트워크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면 즉, 세세한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수요가 크지 않고 인구 분포도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 간의 연계로 도활이 지속적이며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도활의 방법도 공유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서로 나누어보았다.

과거 석탄이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시대에 철암지역은 희망의 땅이었다. 그러나 석탄적정화 정책에 따라 석탄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폐광촌으로 변해버린 철암지역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철암지역을 다녀갔다. 건축가들은 철암지역의 낡은 건물들을 보수하고 새로 지으면서 그 희망을 발견하고 예술가들은 폐광촌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을 통해 희망을 찾고자 했다. 우리들은 도서관에서 그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책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보려고 기획된 도서관 희망 원정대 도활은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㉔)



〈철암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cholam.com>〉



〈철암어린이도서관 기공식날〉



〈철암어린이도서관 기공식에 온 손님들〉